

# 자유경쟁이나, 평등공존이나

한 만 수

순천대 국어교육과 교수



내가 몸담고 있는 순천대학 앞길의 건널목은 늘 위태롭다. 죽기 싫으면 알아서 비키겠지 하는 심사인 듯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이다.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건 모험이 필요하다.

서울엘 올라가면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쉿쉿 바람소리가 난다. 굳은 얼굴로 종중걸음치는 그들은 누가 쓰러져 있는지, 매화꽃이 피었는지 관심이 없다. 그런 건 눈에 띄질 않는다. 그럴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즘엔 유치원생들까지 바쁘다 바빠 하면서 산다지 않던가. 왜 그리 바쁜가.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다. 삶을 환금가치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 천박한 명제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여유나 유장함, 여백과는 거리가 먼, 그

야말로 파시스트적 가속도에 떠밀려 달려가는 눈 먼 경주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디로 달려가는가.

경쟁력이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WTO 발족 이후 경쟁은 전 지구 단위로 확산됐다. 수십 억 인류가 서로 경쟁해야 한단다. 수십 억 대 일이라니 이걸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한 경제블록, 한 국가, 한 거대자본을 위해서 나머지는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거기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 것인가.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질 사람들의 목록은 쉽게 뽑아낼 수 있다. 저개발국가, 노약자, 장애인, 여성, 농민, 노동자, '월급만 축내는' 명예퇴직 대상자, '사사건건 따지기 좋아하는' 지

식인…….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몇 명이 이런 질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경쟁력 강화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균등의 원칙, 즉 공정한 경쟁이나 보장된다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분제 사회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기회균등이란 말 그대로 구두선일 뿐이다.

학문의 경우라면 인문사회계, 사범계가 질 사람 속에 손쉽게 꼽힐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학문들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사멸되어도 좋을 것인가. 자연과학이 불가능을 없애는 구실을 말한다면, 인문사회과학은 가능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판정해낸다. 인간복제에 도전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문학의 몫이다. 할 수 있는 일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인간이다. 인문과학의 패퇴는 따라서 잔소리꾼 몇몇을 없애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의 경우라면 지방대학들이 패배할 진영의 대표 격이다. 그럼 지방대학들은 모조리 폐교시켜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서울공화국을 완성한다면, 그 지옥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교수는 살고,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엄포가 전국의 대학을 뒤흔든다. 그 경쟁은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 학점 잘 주기 경쟁, 정부정책 잘 쫓아가기 경쟁, 귀에 거슬리는 말 안 하기 경쟁이 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말이 대학 구성원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잘못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많겠다. 내 대답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경쟁력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경제논리에만 기대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력 있고 없고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그렇거니와 그것을 장려하는 수단까지도 대학 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경제수단에 의존한다. 쉬운 보기로 복수전공제를 생각해보자. 이는 결국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주먹구구이다. 실제로 지방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들자, 교사 한 사람이 두 과목 이상을 맡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 사람 월급 주면서 두 사람 몫 일을 시키면 당연히 경제적 경쟁력은 강화되겠지. 하지만 시골 선생은 한 사람이 두 과목을 맡고, 대도시에서는 한 사람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일은 당연한가. 결국 지방교육의 질은 지금보다 더 황폐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 아닌가.

복수전공을 하려다 보니 필수과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국어를 교양필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다. 이젠 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학문을 나설 수 있다. 국어란 경쟁력 강화

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니까. 영어야말로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니까. 아예 영어 상용, 국어 박멸의 구호까지 나오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이지, 경쟁에서 이기는 몇몇만을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들러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 꼭 석가나 예수에게 갈 필요도 없다.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부도덕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만큼 경쟁력 강화란 지상명제인가.

생태론자들의 경고에 따르면, 경쟁력 강화와 WTO 체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는커녕, 인류를 대재앙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다. 경쟁력 강화란 결국 경쟁적인 자연침탈로 이어질 것이 불 보

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구식 개발을 이 지구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는 경고가 빗발치는 판에, 이젠 전 인류가 나서서 집단자살을 향해 달음박질 치자는 격이다. 인류를 자연계의 암세포라고 비꼬는 음울한 비유들이 지금처럼 실감 있게 들리는 적도 없다. 굳이 경쟁을 하고 싶다면, 전 국민을 사로잡는 경쟁력 신화의 허와 실을 드러내는 경쟁을 해보자. ■

---

한만수/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되었고, 경향신문 기사를 거쳐 현재 순천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삶 속의 문학, 독자 속의 비평』, 『삶 속의 비평』 등이 있고 “한국 서사문학의 바보인물 연구”, “김유정 소설의 아이러니 분석”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